

치 사

생명의 소리가 충만한 이 봄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대불교문학상과 불교문에 신인상
을 시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방十方에 백화百花가 만발하는 시절입니다. 봄꽃을 대하
면 우리 자신도 꽃과 같은 향기로운 존재이며, 만덕萬德을
갖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함과 맑음, 조화
와 평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본래 만족과
선함, 배품과 용서,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일체중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은 부처님의 서원誓願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
자는 것입니다.

문학 또한 모든 존재들이 지혜와 덕상德相을 소유하고 있
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생명과 생명이 서로 통하고
관계하여, 서로를 구제함으로써 더불어 공존하자는 숭고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화와 혼란의 시대일수록 불교와 문학은 시대와 사회의 선구자요 길잡이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문학상’은 작가 개인의 종교와 문학이념을 넘어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명망 있는 문학가를 수상자로 배출하면서 어느덧 한국문학계의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하는 분들은 실로 높은 경지의 문학적 성과를 이루어 낸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수상자 네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대불교문인협회 수완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